2015학년도

1학년 교과통합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마을 속으로 들어간 학교」

장 곡 중 학 교

1학년 교과통합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 '길은 마을로 통한다' 그 두 번째, 「마을 속으로 들어간 학교」

Ⅰ 목 적

가. 학년 철학('나눔과 소통')이 담긴 교과융합수업('길은 마을로 통한다')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나. 교과융합수업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을 자신 및 학교 밖의 세상과 연결시키고 통합함으로써,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지식을 확장시킨다.

다. 주어진 각 교과별 탐구과제에 관하여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실천하는 전 과정을 통해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킨다.

라.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과정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한다.

마.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Ⅱ 기본 방침

가. 1학년 전체 교과통합 주제인 '길은 마을로 통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교과통합 수업활동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은 별도로 수립함)

나. 통합교과적인 활동으로 실제적,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다. 관련 교과 담당교사들이 해당 일정을 진행·지도한다.

라.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마. 활동이 끝난 뒤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여 인원 5% 이내로 시상한다.

바. 사후 평가회를 통해 이후 학교 계획 및 교육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한다.

Ⅲ 운영 계획

가 세부 추진 계획

1. **주제** : 마을 속으로 들어간 학교
2. **통합 과목** : 국어, 과학, 가정, 미술, 음악, 창체
3. **대상** : 1학년 8개 반 213명
4. **기간** : 2015년 3월 ~ 5월

5. 참여교사

과목	교사
국어	이윤정, 백윤애
과학	서강선, 안상임
가정	정주란
미술	조진영
음악	김경은
창체	이윤정, 조성현, 백윤애

6. **장소** : 교내 교과활동 및 각 반 현장체험학습장

7. **세부 목표 및 (핵심)성취기준**

교과	세부목표	(핵심) 성취기준
국어	•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하여 보고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2933-2 2939-3
과학	• 자신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과9011 과9012-2
가정	• 청소년기의 소비 특성 및 소비 환경에 대해 알아 이를 통해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 •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가9132-1 9132-2
미술	•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미9212
음악	•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를 수 있다.	음9124
창체	• 우리 마을에 대해 알 수 있다. • 마을에서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

8. **교과별 수업 내용 및 평가 계획**

교과	수업 내용	차시	평가
국어	• 현장체험학습 계획 세우기(여행계획서 쓰기)	7	지필평가
과학	• 생태지도 만들기(이야기가 있는 마을 탐방 지도)	3	지필평가
가정	• 청소년의 소비생활(윤리적 소비 실천)	4	지필평가
미술	• 여행지도북 만들기(미니북 만들기)	2	수행평가
음악	•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각 지방의 전통요 알기)	2	수행평가
창체	• 우리 마을(시흥)의 역사화 문화 알기 •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해 알기	5	•

Ⅳ 과목별 활동지

가 창체 활동지

혁신학교 더불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1 학년 ( ) 반 ( ) 번 이름 : ( )
	✿ 활동 주제 :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 — 활동지 2

※ 아래 자료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읽기 자료 1] 서울신문 2013.10.05. 1면

빌려쓰고 나눠쓰면 '기쁨 두배'

공유경제 매력에 빠지다

집·車부터 추상적 재능까지
낡은집 수리해 공동체 생활도

서울시 공유단체 35곳 활동
자원 낭비 막고 친환경 장점

#네 살, 두 살 된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박현주(38)씨는 공유기업 '키플'(Kiple)에 푹 빠졌다. 아이들 옷을 나눔으로써 착한 소비를 꾀하는 키플은 영어로 아이들의 기쁨(Kids plesure)을 줄여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쑥쑥 크는 아이의 옷값은 만만찮다. 못 입게 된 옷을 깨끗이 빨아 보내면 브랜드나 상태에 따라 매겨진 값에 맞춰 가상 화폐가 주어지고, 그 가상 화폐에다 진짜 돈을 얹어 필요한 옷을 살 수 있다. 박씨는 "예쁜 옷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아이 옷은 딱 맞게 나오기 일쑤여서 괜찮은데 금방 못 입게 되기 십상"이라며 "그런 옷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쓸 만한 옷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강모씨는 공유기업 구상에 바쁘다. 아이템은 주차장이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강남은 늘 주차장이 부족해 업무라도 볼라치면 주차 공간이 마땅찮다. 그러나 고층빌딩 한 블록 뒤로만 가면 오피스텔 주차장 같은 곳은 낮에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주차장을 사들여 낮시간에 대여하면 어떨까 싶어 건물주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에게 공유경제란 창업 기회다.

공유경제 범위가 커지고 있다. 여행가방, 전기드릴 같은 걸 돌려 쓰는 정도로 출발해 가상 화폐를 통해 더 맞는 걸 고를 수 있게 해 주고, 낡은 집을 고쳐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끼리 공동체를 꾸리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인정한 공유기업, 공유단체는 35곳이다. 공유하는 것은 집, 방, 자동차, 옷, 공구 같은 물품부터 경험, 전문지식 등 추상적인 것까지 다채롭다. 키플의 경우 지난해 말 1790만원이던 매출액이 올 8월 4020만원으로 늘었다. 반응도 폭발적이다. 집을 공유하는 '우주'의 경우 대기자만 300명을 웃돈다.

김태균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자원 낭비를 막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평판 조회까지 쉬워졌고 신뢰까지 얻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관련기사 13, 14면

1. [읽기 자료 1]을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2. 우리 집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골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 낭비되고 있는 것 한 가지 :
- 공유할 수 있는 방법 :

[읽기 자료 2] 국제신문 2013.10.17. 30면

공유경제의 가치와 한계

시론 **최형림 / 동아대 교수** 항만물류시스템학과

> 자동차•의류•지식 등 이미 많은 자원 공유
> 불경기 저소득 탓 커, 인간 소유욕은 과제

최근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새로이 회자되고 있다. 경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다소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미 실행에 옮겨져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물건, 지식 등을 함께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IT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동차를 원하는 시간만큼 공유하는 '쏘카(SOCAR)', 값비싼 정장을 공유하는 '열린 옷장', 업무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을 공유하는 '코업(CO-UP)', 빈방을 공유하는 '코자자(KOZAZA)', 지식을 공유하는 '위즈돔(WISDOME)' 등이 그것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데, 이와 관련해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행사의 기념 연구보고서는 시사하는 바 크다. 먼저 거래자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기존의 소유경제 아래에서는 한 번 구매해 소유하면 거래가 끝이 나지만, 공유경제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절판된 책과 음반은 다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지만, 공유경제를 통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거래가 가능하다. 지식을 공유하는 '위즈돔'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유경제는 또 IT 플랫폼 기반에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 반대편의 빈방을 확보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인재가 가진 재능과 지식도 필요하면 거래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는 거래시장 규모도 확대시킬 수 있다. 패키지여행의 불만으로 여행을 꺼리던 고객들이 공유경제를 통해 직접 빈방과 가이드 서비스를 구매해 여행을 다니고, 주부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용해 새로운 거래시장을 창출하는 등 기존 소유경제에서는 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체들이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렴한 거래비용과 새로운 수익 창출로 시장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도 공유경제의 특징이다.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제거, 필요한 시간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는 거래구조로 비용을 줄여 수요시장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유휴 자원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공급시장의 수익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도 지니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계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다. 공유경제가 이슈가 된 것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위기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 소유 대신 공유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유보다는 소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휴제품의 재활용을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중고제품 재활용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내가 사용하던 제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검증되지 않은 타인의 제품을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확신 또한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공유경제를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도 아직 많이 미흡하다. 대부분 법률이 소유경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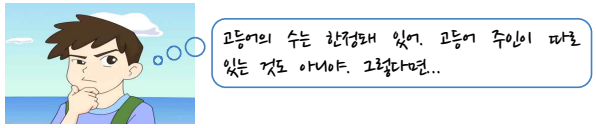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명확하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인간의 소유욕망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법률적 뒷받침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인간의 소유욕망은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 이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유'보다는 '공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변화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공유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학교 더불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1 학년 ( ) 반 ( ) 번 이름 : ( )
	✿ 활동 주제 :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활동지 3

※ 아래 자료를 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Q. 고등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u>모두가 오래오래 고등어를 잡으려면</u>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1	선택2
다른 사람들이 잡아가기 전에 내가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큼씩 잡을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

1. 여러분이라면 '선택1'과 '선택2'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 봅시다.

2. 선택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잡는 고등어의 총량 외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말해 봅시다.

3.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봅시다.

창의적 체험활동	1 학년 ( ) 반 ( ) 번 이름 : ( )
	✿ 활동 주제 :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활동지 4

※ 아래 [읽기 자료]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읽기 자료]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공중 화장실의 화장지는 왜 빨리 없어질까? 청계천에 심은 사과나무의 사과는 왜 익기도 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 바다의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어종이 멸종되는 일은 왜 발생할까? '공유', '공중', '공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자신의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지하철 화장실은 쉽게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이러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가렛 제임스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이다. 생물학 교수였던 하딘은 1968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면서 논쟁을 시작했다. 대체 공유지에서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 마을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10가구가 있었고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각 집에서는 10마리의 양을 키웠으며 그 목초지는 양 100마리를 키우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어느 날 한 집에서 남들 모르게 양을 한 마리 더 키웠다. 그 집은 한 마리의 양을 더 키움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좋은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돼버려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목초지가 황폐화된 이유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집집마다 남들 모르게 양을 한두 마리 더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양들이 풀뿌리까지 먹어버렸고 목초지는 황폐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같이 한 번 따져보자. 공유자원은, 원하는 사람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결정한다. 우선 각 농가는 공유지에 자신의 양을 더 방목해서 생기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할 것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많다면 더 방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비용이 이익보다 많으면 더 이상의 방목을 멈출 것이다. 이때 각 농가의 이익은 공유지에서 양을 길러 파는 돈이고, 부담하는 비용은 양을 키우는 데 드는 돈일 것이다. 그런데 방목으로 얻는 이익은 각 농가가 혼자 차지하지만, 목초지는 공유하므로 비용은 아예 들지 않거나, 다른 농가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이익이 비용을 앞지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농가는 몰래 추가 방목을 하기로 결정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선택이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하딘은 인간의 이기심이 공동체의 파괴는 물론 그 자신의 손해로도 이어진다고 보았다. 목초지에 양을 추가로 키우던 농가는, 늘어난 양으로 인해 원래 자신이 키우던 10마리마저 굶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악한 선택에 흐뭇해하던 양 주인의 표정이 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우선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공유지의 황폐화를 저지시킬 수 있다.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처벌을 가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유지를 나누어 개별 경제주체인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각자 자기 몫의 목초지를 소중히 관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소통과 신뢰를 통해 충분히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1. **'공유지의 비극'이란 무엇인지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해 봅시다.**

2.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해 봅시다.**

3.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해 보고,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①

  ②

  ③

-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유는(구체적으로)?

나 국어 활동지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주제	우리 반 체험활동 계획하기		
소주제	교실에서 상상하기		

1. 우리 반이 체험활동을 하러 가게 될 장소는 (　　)이다.

2. 날짜는 5월 (　　)일부터 5월 (　　)까지 2박 3일 간.

3. 우리 반 친구들과 체험활동을 하러 가서 가장 얻어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가서 무엇을 할까?

(1) 먹거리 : 두 끼 정도를 모둠별로 만들어 먹는다고 했을 때, 식단을 짜 보자.

	한 끼	두 끼
식단		
예상되는 준비물		

(2) 놀거리 :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3) 볼거리 : 우리 반 체험활동 장소인 (　　) 근처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을까?

혁신학교 더불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주제	우리 반 체험활동 계획하기		
소주제	교실에서 상상하기		

1. 우리 반이 체험활동을 하러 가게 될 장소는 (　　)이다.

2. 2박 3일 간 이루어질 일정을 짜 보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일정	9시쯤 학교에서 출발!		
중식			
오후일정			
석식			
저녁일정			오후 5시쯤 학교 도착(예정)
취침			

1학년	반	번	이름 :
대주제	우리 반 체험활동 계획하기		
소주제	지금까지의 활동 돌아보기		

1. 국어 시간에 '우리 반 체험활동'을 계획하면서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 보자.

2.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모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3. 체험활동을 떠나기 전에 더 생각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4.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

다 음악 활동지

음악	1학년	반		번 호		이 름	
대단원 : 하나 되는 지구촌			소단원 : 우리나라 민요				

1. 지역별 언어(사투리) 알아보기

① 표준어: 잠시 실례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표준어: 빨리 오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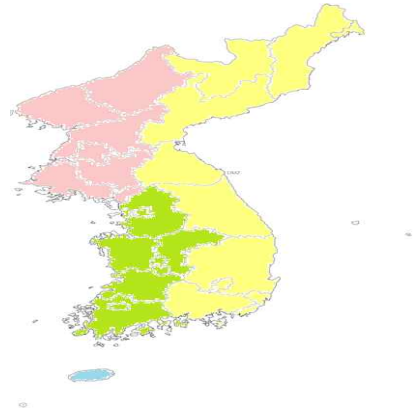
표준어: 괜찮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한 것처럼

→

2. 음악적 특징에 따른 지역 구분 알아보기



■ 지역에 따라 음악적 특징이 다른 이유는

→

음악	1학년	반		번 호		이 름	
대단원 : 하나 되는 지구촌			소단원 : 우리나라 민요				

3. 민요 지도 그리기

남도, 동부, 서도, 경기, 제주 지역을 구분하여 색칠하고, 지역에 따른 민요의 특징을 우리나라 지도에 정리해 봅시다.

지역 :

대표적 민요 :

특징 :

지역 :

대표적 민요 :

특징 :

지역 :

대표적 민요 :

특징 :

지역 :

대표적 민요 :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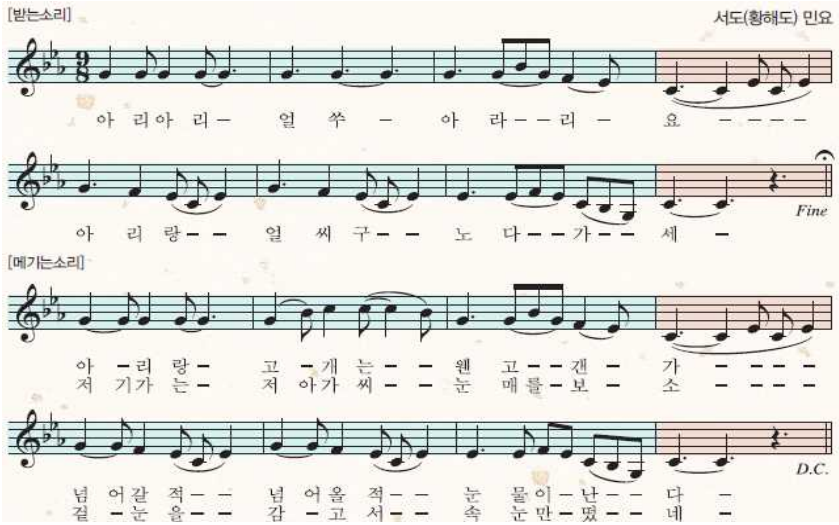
지역 :

대표적 민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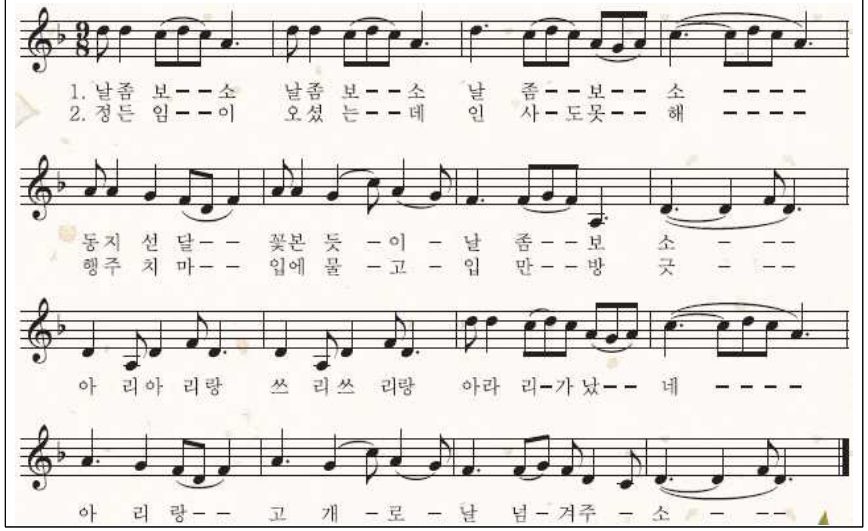
특징 :

음악	1학년	반		번 호		이 름	
대단원 : 하나 되는 지구촌			소단원 : 우리나라 민요				

해주 아리랑



밀양 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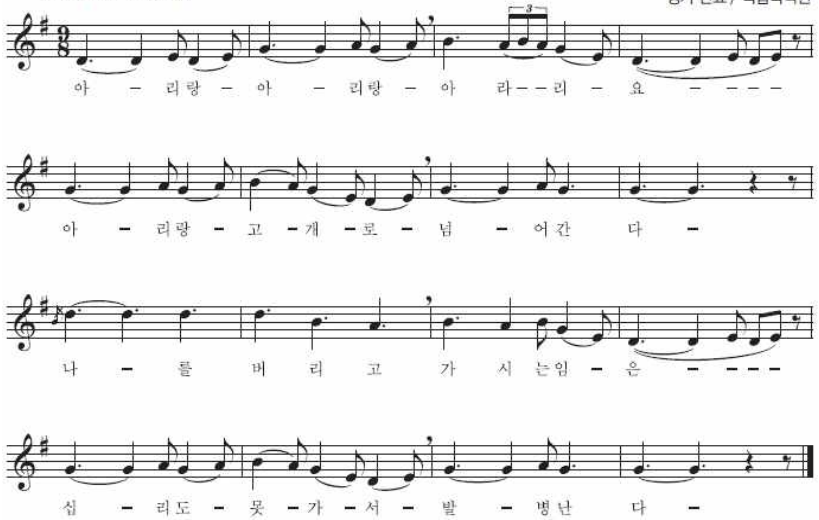


음악	1학년	반		번 호		이 름	
대단원 : 하나 되는 지구촌			소단원 : 우리나라 민요				

| 아리랑 |

세마치장단 ♩.=7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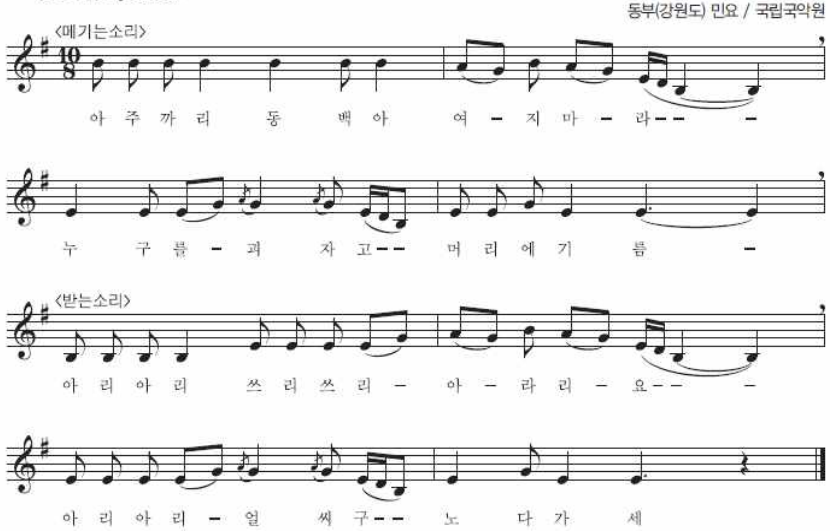
경기 민요 / 국립국악원



| 강원도 아리랑 |

엇모리장단 ♩.=60~96

동부(강원도) 민요 / 국립국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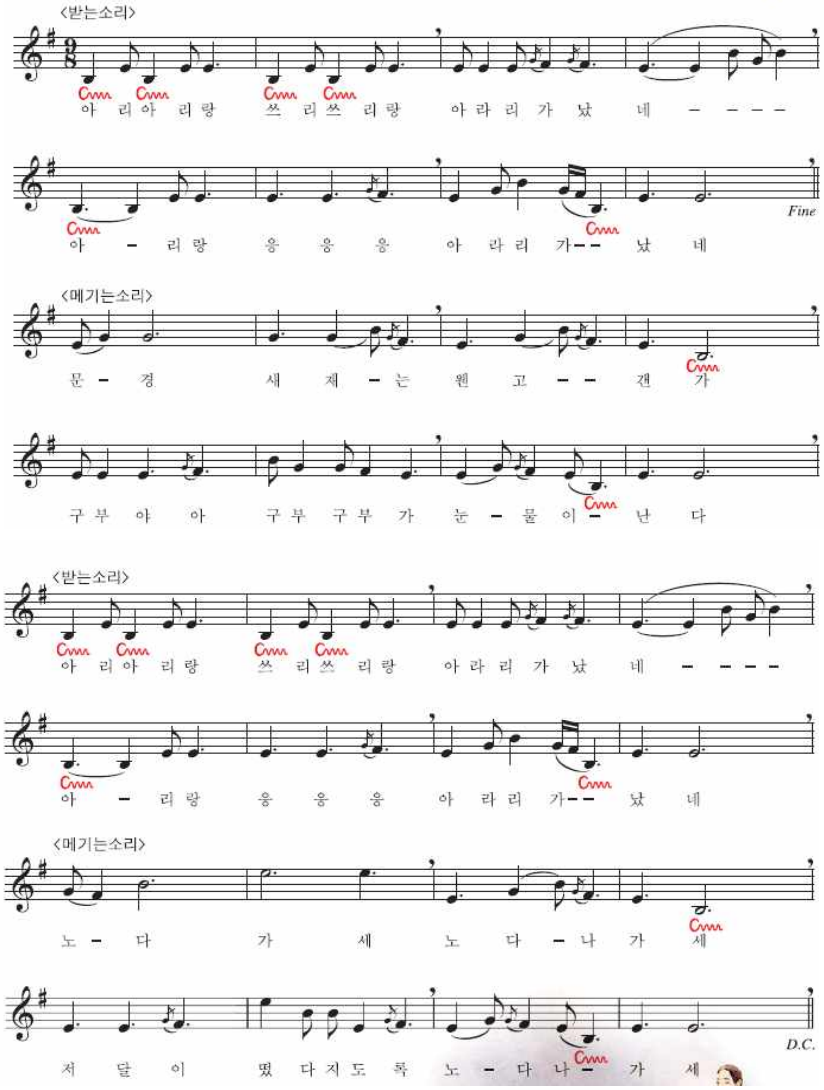


음악	1학년	반		번 호		이 름	
대단원 : 하나 되는 지구촌			소단원 : 우리나라 민요				

| 진도 아리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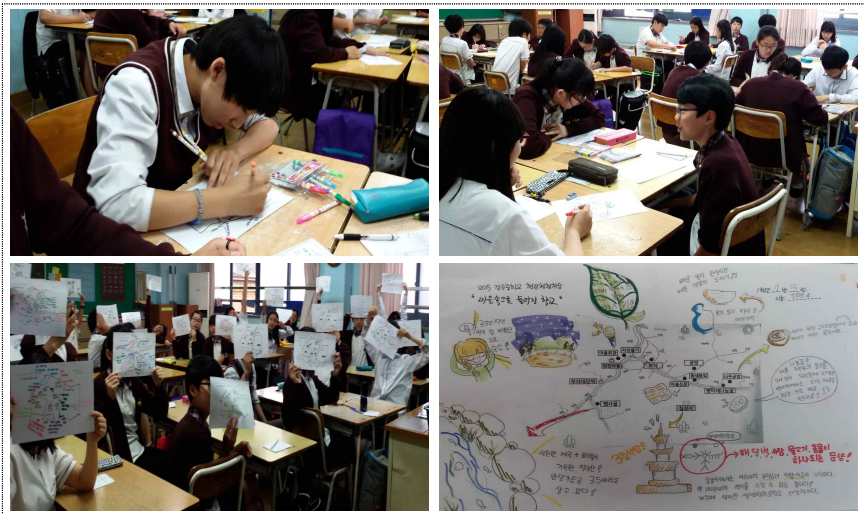
세마치장단 ♩.=72~108

남도(전라도) 민요 / 국립국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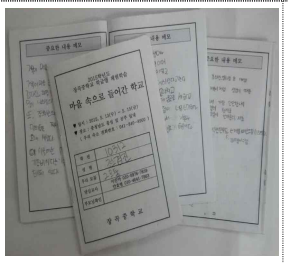


V 활동 모습

사회적 경제 교육(시청 주민자치과 지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도 그리기



체험학습 지에서 활용한 워크북

체험학습 후 작성한 보고서(미니북 만들기)

VI 반성 및 평가

가. 현장체험학습이 교과통합으로 진행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 '마을로 들어간 학교'라는 주제에 걸맞게 모든 반이 현장체험학습 시 마을 탐방을 실시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도 그리기'까지 완성함으로써 교과통합의 완성도를 높였다.

다. 학생들이 스스로 여행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이다 보니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고, 실제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장소의 경우에도 아이들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행착오로 여기게 되었다.

라. 현장체험학습 여행 계획을 짤 때 좀 더 여유롭게 계획을 짬으로써 마을 탐방 후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